

# 우나무노의 宗教와 神

김 현 창  
서울대, 서문학

## 1. 宗教의 概念

우나무노의 모든 文學作品은 종교적 색채를 갖고 있으며 그 작품들의 문학적 주제는 깊은 종교적 뿌리를 갖고 있다. 그의 문학은 사회학적, 교육학적 요소는 철저히 배제하며 오로지 종교적으로 일관한다. 우나무노의 독서의 주류를 이루는 서적들은 단연히 종교적, 철학적인 것으로 신약성서, 성 빠블로, 성 아구스틴, 파스칼, 스피노자, 루소, 세낭쿨, 레오파르디, 키에르케고르, 버틀러, 산따 테레사, 산 환 델 라 꾸르스, 산 익나시오, 칸트, 윌리엄 제임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과 고행주의자들로 특히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인 스테셔마터, 하르낙, 지첼, 루터 등이 있다.

우나무노의 이러한 뚜렷한 종교적, 철학적 관심의 특성은 무엇인가? 즉, 그의 종교와 철학의 출발점은?

그의 출발점은 사람이다. 그리고 永續과 不滅에의 意志이다. 우나무노에 있어 종교의 근간은 神이 아니고 사람이다. 우나무노는 그의 수필 『충만중의 충만, 완전한 충만』에서 다음과 같이 그의 종교관을 피력하고 있다.

“종교가 자기자신의 본질 속의 內密한 감정과 자기자신의 본질의 영속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가 아니고 종교철학이 될 것이다. 神에 대한 신앙심은 우리 자신의 본질적 존재에 대한 신앙에서 비롯된다.”

우나무노는 『생의 비극적 감정』 제 10장에서 종교는 어떻게 하여 생성되는가를 상세히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종교를 창출해 내는 요인을 보면 사람들이 갖는 神性에의 감정, 神에 대한 정감, 신앙심을 가지려는 감정, 희망 그리고 자비

---

1) Unamuno, Miguel de; *Ensayos*, Espasa-calpe, pp.85-86.

심 등이다. 神에 대한 신앙심에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神을 向한 희망에서 사람을 향한 희망이 생긴다. 그리고 神에 대한 자비심과 측은지심에서 희망이 생긴다. 기독교 신앙에서 神은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이 되기에 이른다. 故로 기독교의 神에는 전인류는 물론 전우주가 있다. 故로 神과 사람과의 관계 즉, 사람과 神과의 內密한 합일을 사람들은 종교라 부른다.

그러면, 종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종교성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종교와 종교성은 어떤 관계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우나무노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든다.

“타시토(Tácito)는 말하기를 유대인에게 이단적인 것은 로마인들에게는 신성한 것이며 또한 로마인들에게 이단적인 것은 유대인에게 신성한 것이다. 故로 로마인이었던 타시토는 유대인들은 미신적이라 하였고 기독교를 잘 몰랐던 타시토는 기독교를 유대교와 유사하다 생각하여 기독교를 사악한 미신이라 하였다.”<sup>2)</sup>

우나무노는 종교에 관한 정의를 할 때 제일 먼저 슈라이어마허(Schleiermacher)를 든다. 슈라이어마허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보다 더 上位의 어떤 신비한 힘에 의지하고 그 힘과 관계 맺기를 원하는데서 종교적 감정이 생긴다는 것이다. 종교적 감정에 관하여 헤르만(W.Herman)은 인간실존에 관한 진실한 염원이라 정의하며 쿠르노(Cournot)는 보이지 않고 현란하며 초자연적인 것에로의 집중의 결과가 종교적 감정이라 정의하고 있다.

神은 생에 의미를 부여하고 생에 초월적 목적의식을 부여한다. 神과 합일하려는 종교적 열망은 과학이나 예술이 아닌 생을 위해서이다. 괴테는 말하기를 과학이나 예술을 하는 사람은 종교를 갖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과학도, 예술도 없는 사람은 종교를 가져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종교인의 神과 합일하려는 노력은 神 속에서 실종하려는 것이 아니며, 神에게 소유되는 것이 아닌, 神을 소유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종교란 스스로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체화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생에의 열망이지 죽음에의 열망이 아니다. 플로베르(Flaubert)는 말하기를 인간의 영원한 종교는 자기존재에의 경배이며 생에의 경배이다. 영혼불멸에의 열망이야말로 종교의 본질이며 그렇기 때문에 神은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神과 영혼불멸이란 사실은 하나이며 同一한 것이다.

2) Unamuno, Miguel de; *Del Sentimiento trágico de la vida*, Espasa-Calpe, Madrid, 1985, pp.189-199.

지나치게 논리적이며 신중하면 神秘의 관문에 진입하지 못한다. 단테의 『神曲』에서 기독교도들의 가장 바람직한 태도로서 사람들의 운명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신과 그 아들의 전지전능한 손안에 있으니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그로 하여금 우주와 생명의 목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기를 확신하는 것이며 이러한 모범적 신앙심은 루터로부터 칸트까지 전해 내려온 진실한 기독교도의 전통적 자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永遠이란 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고 노력했고 또한 인간이 기계가 아닌 이상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나무노에 있어 그리스도의 復活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절대조건이다. 만일 그리스도가 영혼과 육체로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나무노는 그리스도에 대해 신앙심을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우나무노는 『생의 비극적 감정』 제 4장에서 기독교의 특수성은 영혼불멸의 발견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신앙심이라 논하면서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親예수적일 수 있지만 기독교도는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 즉, 예수의 영원불멸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의 핵이며 씨앗이며 자기자신의 영혼불멸에 대한 믿음의 지렛대이며 內密한 정신적 생명의 샘이다. 그러므로 아따나시오(Atanacio)도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신격화했고 신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sup>3)</sup>

## 2. 理性과 영혼불멸

우나무노에게 있어 理性은 인간의 영혼불멸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生에 대한 위안도 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정신의 深淵에서는 감정적인 절망과 합리적 회의주의만이 있을 뿐이다. 절망과 회의주의는 서로 비극적 포용을 하면서 심각하면서도 무서운 생의 샘물을 솟게 한다. 이 회의주의와 불확실성은 理性을 낮게 하며, 생의 감정적 절망을 낳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 진실의 추구는 생의 원동력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는다. 理性은 형식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生은 모든 형식을 거부한다. 불멸에 대한 신앙은 비합리적이다. 그러나 신앙, 생, 이성은 서로 필요로 한다. 이성과 신앙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비합리적인 것은 합리화되기를 원하고 이성은 비합리적인 것 위에 작용한다. 철학과 종교는 서로 적이기 때문에 서로 필요로 한다. 철학적 바탕 없는 종교도 없고 종교적 뿌리가 없는 철학도 없다. 이

3) Unamuno, Miguel de; *Ensayos, opus cit.*, p.86.

들은 상호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철학의 역사는 엄격히 말한다면 종교의 역사이기도 하다. 소위 철학적, 과학적 견지에서 종교에 접근하는 것은 종교의 반대입장에서 공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자연철학과 기독교간의 분쟁은 자연적 종교본능과 우주에 대한 기독교적인 가치개념간의 분쟁이다. 칸트의 비판적 이상주의는 종교적 본능에서 온 것이며 안티테제의 체계와 역설 위에 헤겔이 주조한 절대이상주의는 칸트에 그 뿌리가 있으며 칸트의 이 뿌리는 비합리적인 것이다.

또한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의지의 문제이지 이성의 문제가 아니다. 신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이 존재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故로 영혼불멸은 믿는 것도 영혼이 불멸인 것을 원하는 것이다. 理性과 生, 철학과 종교간의 조화와 합의는 불가능한 것이다.

우나무노는 강조하기를 인류의 비극적 思想史는 이성과 생과의 투쟁사이며 소위 말하는 객관적 현실 세계의 감정이란 불가피하게 주관적이며 인간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주의의 결과는 자살로 이어진다. 키에르케고르도 자살은 순수思想적 존재의 결과일 뿐이며, 자살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열은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상가도 역시 사람이다. 理性은 생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그러나 생은 理性을 농락하고 理性은 생을 농락한다. 소위 생을 위해 만들어진 아리스토텔레스적 스킨라철학은 형이상학의 합리적, 진보적 스킨라 체계를 만들었다. 이 철학은 카톨릭 이전 프로테스탄트건 정통기독교의 초자연주의의 기초가 된다. 이는 사실은 理性으로 하여금 생을 지원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파멸 그 자체였다. 우나무노에 있어 개인적 영혼불멸은 논리적 반의이며 비합리적이며 반이성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은 理性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은 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생은 理性에 굴종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어느 칸트 추종자는 말할 것이다. “의무적으로 하면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나무노는 이렇게 답한다. “할 수 없으니 할 의무도 없는 것이다.”라고. 우나무노의 답은 계속된다. “생의 목적이란 사는 것이지 그걸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理性은 우리의 존재를 의심케 해서는 안된다. 즉, 理性은 회의주의와 생의 부정을 낳게 한다.

### 3. 신앙심과 회의주의

신앙심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의 교리문답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 한다. 그러나 우나무노는 '우리가 못보는 것을 창조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신에 대한 희망은 신이 존재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것. 신앙이란 논리적, 합리적인 것에 감정적, 생리적, 감상적인 것이 합류한 것이다. 도그마 없는 순수한 신앙이란 하나의 환상이라 할 수 있다. 신앙이란 작용할 수 있는 대상을 필요로 한다. 씨베르그(Seeberg)는 말하기를 "신앙이란 內密한 굴종이며 신의 정신적 권위에 대한 복종이다. 이 복종이 합리적인 원칙을 획득하는 방법이어야 개인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다."<sup>4)</sup> 산 빠블로는 말하기를 신앙이란 믿음이라 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합리주의자들은 定義와 概念을 믿는다. 또 生氣論자들은 영감과 사람을 믿는다. 합리주의자들은 우주를 연구분석하며 그 비밀을 찾으려 하고 生氣論자들은 우주의 의식에 호소하여 우주의 신과 영혼과의 접촉을 꾀한다. 사람은 意志로 대신되며 意志는 항상 미래지향적이며 믿는 자는 앞으로 올 것을 믿고 희망하는 것을 믿으며 앞으로 올 것만을 보증하는 것이다. 기독교도가 예수의 復活을 믿는 것은 전통과 복음서를 믿는 것이며 자기 자신도 언젠가는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신앙심은 한편으로는 理性에 의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 것이다. 또한 신앙이란 意志이지만 죽지 않으려는 의지이고 叡智나 意志, 감정과는 또다른 어떤 영적인 힘을 믿는 것이다. 또한 신앙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적 힘을 갖게 한다. 신앙은 또한 그 대상을 창조하는 힘을 갖고 있다. 신의 믿음은 신을 창조하는 것이다. 신앙심에 관한한 우나무노의 회의주의는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의 회의주의가 제일 잘 나타난 작품이 『성 마누엘 부에노』이다. 신부 돈 마누엘은 그의 신도들로부터 聖人으로 대접받지만 돈 마누엘 자신은 신의 존재에 대하여 懷疑하고 있다. 신앙심의 위기에 관하여 우나무노는 마가복음 제 9장을 인용한다.

한 사람이 마귀에 들린 아들을 예수에게 데리고 갔다. 아들은 예수 만나기를 거부하며 입에 거품을 뿜어내며 이를 가는 것이었다. 예수는 신심은 없이 자기에게 기적만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그대들과 함께 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그대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봐야 하는가? 그를 데려오너라" 그리고 마귀들린 아들을 데려오자 "언제부터 이런 상태인가?"라고 예수가 물었다. 어렸을 때부터라 했다. 예수가 답하기를 "네가 믿음만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이 말에 아이의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주여, 저의 믿지 못하는 점을 도와주십시오."

4) Unamuno, Miguel de: *Del sentimiento trágico de la vida*, opus cit., p.168.

'저의 믿을 수 없는 것을 구원해주시오'라는 말은 자신의 신앙의 결여를 구원해달라는 말이다. 마귀 들린 소년의 아버지의 이 피나는 호소는 가장 심오한 인간적 가치를 창출해 내는 순간인 것이다. 왜냐하면 아들이 치료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갖고 싶은 것이다. 그의 신앙은 불확실성을 근거로 한 신앙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믿을 수 없는 것을 치유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인간적인 신앙이다. 이것이 바로 산초판사가 돈키호테에게 가졌던 신앙이다. 산초의 믿음은 불확실과 의문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산초는 온건한 사람이었지, 바보는 아니었다. 돈키호테는 내면적으로는 절망한 사람이었다. 즉, 영웅적 절망의 기사였다. 돈키호테의 영혼은 理性과 不滅의 角逐場이었다. 즉, 돈키호테의 신앙심은 불확실성에 근거한 것이었고 산초의 信心은 합리주의적 신심이였다.

신에 대한 고통스럽고 고문적인 의문에 시달리던 헤르만 프랑케(Hermann Francke)는 이미 믿지않는 신에게 자비심을 求하고자 신을 찾았다. 우나무노도 프랑크와 같은 심정에서 그의 서정시 『念珠기도』에서 다음과 같이 부르짖고 있다.

존재하지 않는 神이여  
 나는 당신으로 해서 고통스럽습니다.  
 만일 당신이 존재한다면  
 나역시 진실로 존재할 것입니다.<sup>5)</sup>

우리의 불멸을 보증하는 신이 진정으로 존재한다면 우리도 진정으로 존재할 것으로 우나무노는 믿고 있다. 루터가 자기구원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던 것은 실은 신앙심의 절망적 형태인 불확실성이었다. 理性의 희생물이 되어 끝내 信心을 상실했던 레오파르디(Leopardi)는 그의 『야생닭의 노래』에서 다음과 같이 절망적인 노래를 하고 있다.

“이 우주와 자연은 소멸할 때가 올 것이다. 마치 과거에 위대했던 왕국과 제국의 모든 위엄과 명망이 오늘은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과 같이 창조된 모든 만물의 무한한 재앙과 사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오직 沈黙과 깊은 정적만이 무한 공간을 메우고 있는 것이다. 우주의 驚異스럽고도 자랑스러운 深淵은 자신을 표현하기도 전에 소멸할 것이다.”<sup>6)</sup>

5) Unamuno, Miguel de; *Del sentimiento trágico de la vida, opus cit.*, p.118.

6) Unamuno, Miguel de; *Del sentimiento trágico de la vida, opus cit.*, p.120.

#### 4. 神의 개념과 역사성

종교적 감정이란 신성을 향한 감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이 신에 접근하는 이유는 신성 때문이지 신의 신성을 추정하여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神의 개념은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기독교가 그 예이다. 종교적 감정의 본질은 직접적이고 단순한 의존의 감정이란 슈라이어마허(Schleiermacher)의 종교이론은 심오한 견해라 하겠다.

원시인들은 자연의 신비스러운 힘을 감지하고 이웃과 자연과의 연대의식을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이란 어떤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로 향한 의식의 주관화 즉, 세계의 인격화이다. 고로 신성에 대한 감정은 인격화된 세계의 意識에서 샘솟는 감정이다. 그리스의 사상은 다신교적이라기보다는 범신론적이다. 신들은 사람들과 함께 할뿐만 아니라 여인에게서 신이 탄생하고 女神이나 半神에게서 남자가 탄생하기도 하였다. 고로 그리스인들에게는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同一한 현실의 같은 얼굴이었다. 모든 것의 신성화는 모든 것의 인간화인 것이다. 다만 신과 인간의 차이점이란 신이 불멸이란 점뿐이다. 이 신들의 공화국에서 항상 首長이 되는 신이 있었다. 이 首長신이 唯一신 이론의 근원이 된 것이다. 제우스와 주피터는 유일신으로 변모하게 된다. 唯一신 사상은 실은 전쟁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로버트슨 스미스(Robertson Smith)는 그의 저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에서 언급하기를 전시에 행군할 때 또는 유목민족들이 갑자기 중심적 권위가 필요할 때 다시 말하여 초기 국가가 형성될 때, 이스라엘인들은 자신들을 여호아의 군대로 믿었다고 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도 그 어원은 군사용어로서 신이 나가 싸운다는 뜻이다. 그리고 구약에서 여호아는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아인 것이다. 그래서 전장에서는 항상 여호아의 존재가 분명히 드러났던 것이다.<sup>7)</sup> 신, 唯一신은 戰士적이며 사회적이고 군주적 신으로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한 종족의 신이 되었고 자기자신에게만 경배하도록 요구했고 이 유일경배사상이 유일신 사상으로 되었으며 이에 예언자들의 철학적인 사상이 가미된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식의 신성개념에서 태어난 신이 이성을 갖게 됨으로서 철학이 나왔고 논리적인 신, 합리적인 신, 신학적 철학의 최고 존재인 신은 신에 관계된 생각일 뿐 죽은 개념일 뿐이다. 이 유일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그 많은 논쟁들은 그 본질을 정의하려는 헛된 의도일 뿐이다. 신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말하지 않고 신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말도 안하는 것과 同一한 것

7) Unamuno, Miguel de; *Del sentimiento trágico de la vida. opus cit.*, p.147.

이다. 신의 존재에 관한 고전적인 증명 즉, 이데아의 신, 논리적인 신을 증명하려는 모든 노력들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면서 끝을 맺는다.

이상이 유일신에 관한 우나무노의 관점이다. 고로 살아있는 신, 인간적인 신은 理性을 통하여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고뇌를 통하여 도달하는 것이다. 理性은 신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점점 더 멀리 격리시킨다. 신을 알려고 하기 전에 신을 기원하고 사랑함으로 시작해야 한다. 또한 신은 정의가 불가능하다. “신을 정의하려는 것은 신을 인간의 정신 내에 한정하는 결과가 되며 신을 죽이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sup>8)</sup> 종교적 문제에 있어 아직까지 무엇인가 합리적으로 해결된 것이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다. 우나무노는 기독교의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 그러나 모든 도그마는 거부한다. 우나무노는 존경과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사람을 기독교도라 부른다. 그러나 그는 카톨릭이든지 프로테스탄트가든지 정통파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타협이 불가능하여 복음서를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기독교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현상학, 우주학, 윤리학 등 신의 존재에 대한 합리적 증거들을 제시하려는 모든 학문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신의 존재를 말하는 모든 논거들은 背理 즉, 그릇된 견해에 근거를 둔 것이다. 신의 존재에 대하여 아무도 우나무노를 합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했다.

그리고 신의 存在도 마찬가지다. 우나무노가 신을 믿는다면 그는 신을 믿는다고 믿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신이 존재하기를 바라고 때문이다. 무신론자들의 논지는 그 반론자들보다도 더 피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우나무노는 생의 신비와 싸우면서 보낼 것이라 하며 비록 싸움이 성공할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싸움이 그의 위로요, 양식이며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 그의 신 앞에서의 자세이다. 우나무노는 신의 존재에 대한 전통적인 증명방법을 거부한다. 충분치 않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증명치 못한다고 단언하고 있다. 우나무노에 있어 신에 달하는 유일한 길은 마음을 통해서이다. 사랑과 감정을 통해서이다. 이를 우나무노는 고뇌라 부른다. 신에 관한 우나무노의 체험적 고뇌를 들어보자.

“나는 합리적 회의주의에 빠지면서 동시에 감정적 절망감에 빠지면서 나는 신의 굶주림을 체험했다. 그리고 정신적 배고픔은 신의 실재를 느끼게 했다.”<sup>9)</sup>

8) Unamuno, Miguel de; *Del sentimiento trágico de la vida, opus cit.*, p.153.

9) María, Julián; *Miguel de Unamuno*, Espasa-Calpe, p.154.



우나무노는 또 말한다.

“나는 벼를 믿는 것과 같이 신을 믿는다. 왜냐하면 나는 신의 애정어린 숨결과 보이지않고 잡히지 않는 그의 손길을 느끼기 때문이다.”<sup>10)</sup>

우나무노는 여기에서 신과의 접촉을 말하고 있으며 방향을 제시하는 등 어떤 강력한 예지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체험이 神性的의 지식으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우나무노의 神은 때때로 존재의 支柱로서 나타날 뿐이지 창조자로서의 신 개인의 불멸을 보증하는 신은 아니다. 우나무노는 『생의 비극적 감정』 제 10장 끝에서 말하기를 ‘저 세상을 믿어야 한다’고 한다. 무덤 위에 있는 영원한 생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의식하는 개인적인 생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의식이 지고의 의식 즉, 신 속의 모든 의식과 合流하는 것을 느껴야 한다. 永生을 살기 위하여 믿어야 하고 참아야 하고 거기에 생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 아마도 永生을 살 수 있는 자격을 갖기 위하여 믿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또 그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믿어야 한다. 우나무노는 위와 같은 자기의 사상을 정당화해주는 『오베르만(Obermann)』의 글을 인용하고 있다. “인간은 죽게 되어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저항하면서 죽어가자. 우리 앞에 無만이 있다면 이것이 정의가 되게 하지는 말자.”<sup>11)</sup> 이렇게 하여 우나무노는 영생을 갈망하는 인간의 치열한 열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름은 예수라고 말하고 있다.

## 5. 결론

위에서 우리는 우나무노의 종교에 관한 觀點을 여러 각도에서 전개, 검토하였다. 우나무노는 그의 생전에 자기의 종교관을 피력하는 『나의 종교』란 저서를 남겨 놓았다. 그의 종교관이 투철히 드러나는 고백을 결론으로 들어보기로 한다.

“나의 종교는 내가 살이 있는 동안에 발견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生에서 眞理를 찾고 진리에서 생을 찾는 것이다. 나의 종교는 피로를 모르고 부단히 신비

10) *Ibid.*, p.154.

11) *Ibid.*, p.156.

와 투쟁하는 것이다. 나의 종교는 黎明으로부터 日沒까지 신과 싸우는 것이다. 야곱이 신과 싸웠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不可知論과는 타협할 수 없다. 나는 영원한 무지개는 거부한다. 어찌되었든 나는 불가능에 도전하고 싶은 것이다. 예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완전하라고 하지만 그런 완전은 쟁취하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우리의 목표로 설정하고 노력에 의하여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학자들은 은총에 의하여 완전을 얻었다고 하나 나는 승리와는 무관하게 투쟁을 할 것이다. 분명히 패할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나 민족이 있지 않는가? 항복보다는 싸우면서 죽어가는 자들을 우리는 칭찬하지 않는가? 바로 이것이 나의 종교이다.”<sup>12)</sup>

---

12) Unamuno, Miguel de; *Mi religión*, Espasa-Calpe, p.10.

## 참고문헌

- Unamuno, Miguel de, *Del Sentimiento trágico de la Vida*, Espasa-Calpe S.A., Madrid, 1985
- , *Mi religión*, séptima edición, Espasa-Calpe S.A., Madrid
- , *La agonía de cristianismo*, sexta edición, Espasa-Calpe S.A., Madrid.
- , *San Manuel bueno, el Mártir y tres Historias más*, Espasa-Calpe S.A., Madrid, 1984.
- Garagorri, Paulino, *La Filosofía española en el Siglo XX*, Alianza Editorial, Madrid, 1985.
- Gullón, Ricardo, *Autobiografías de Unamuno*, Editorial Gredos, Madrid, 1976.
- Marías, Julián, *Miguel de Unamuno*, Espasa-Calpe S.A., Madrid, 1960.
- Rico, Francisco, *Historia y Crítica de la Literatura española(VI)*, Editorial Crítica. Barcelona. 1980.

## La Religión y el Dios de Unamuno

Todas las obras de Unamuno llevan color religioso, es decir, todos los temas literarios tienen raíz religiosa. El punto de partida de su religión no es el Dios, sino el hombre mismo. Como teoría de la creación de religión Unamuno está de acuerdo cuando Schliermacher dice que el origen o la esencia del sentimiento religioso está en el inmediato y sencillo sentimiento de dependencia. Filosofía y religión son enemigas entre sí y por ser enemigas se necesitan una a otra. No hay religión sin alguna base filosófica ni filosofía sin raíces religiosas.

Para Unamuno, el Dios del racionalismo deísta, el Dios de las pruebas lógicas no es más que una razón suprema lo cual no acepta Unamuno. Por lo tanto Unamuno busca Dios vivo en la conciencia del hombre. Es Dios en cada uno según cada uno lo siente y según le ama. Al mismo tiempo Unamuno rechaza toda clase de definición de Dios llevada a cabo por razón. Definir a Dios es matar a Dios.

La fe cristiana consiste en creer en la resurrección de Jesús y creer su inmortalidad. Para Unamuno, la fe no es creer lo que no vemos, sino crear lo que no vemos. Poner esperanza en Dios es esperar a que exista el Dios.

Con respecto a la religión, Unamuno confiesa como siguiente: "Mi religión es buscar la verdad en la vida y la vida en la verdad, aun a sabiendas de que no he de encontrarlas mientras viva; mi religión es luchar incesante e incansablemente con el misterio; mi religión es luchar con Dios desde el romper del alba hasta el caer de la noche, como dicen que con El luchó Jacob. No puedo transigir con aquello del Inconocible- o Incognoscible, como escriben los pedantes - ni con aquello otro de <de aquí no pasarás>. Rechazo el eterno *ignorabimus*. Y en todo caso quiero trepar a lo inaccesible."<sup>1)</sup>

---

1) *Ibid.*, p.10.